

광주·전남 양궁 6명 국가대표 1차 관문 넘었다

순천시청 이은경 1위...안산·기보배·김민서도 2차 선발전 진출 남자 이승윤·이진용 통과...내년 3월 2~3차 선발전서 8명 압축

광주·전남 남녀 양궁 대표선수들이 국가대표 1차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했다.

이은경(순천시청)이 1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은 14위로 1차 관문을 넘었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는 15위, 김민서(광주여대)는 25위로 2차 선발전에 합류했다.

남자부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과 이진용(조선대)이 각각 9위와 20위에 올라 2차 선발전에 나선다.

이번 선발전은 내년 9월 개최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등에 출전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각 32명은 내년 3월 2~3차 선발전을 통해 각각 8명으로 압축된다. 다시 두 차례 최종 평가전을 통해 선발된 남녀 상위 3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이은경은 지난 29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2년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배점 32점을 기록, 리커브 여자부 1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은경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강재영(현대모비스), 장혜진(LH)과 함께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쥔 바 있다.

안산은 2차전에서 선전을 다졌다.

안산은 "도쿄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잇따라 치르며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꼈다"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올 겨울 팀에서 체력을 보완하고 리듬을 회복한다면 내년 2차 선발전은 자신 있게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도 태극마크를 아쉽게 놓친 기보배는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그는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훈련한 덕분에 예전 경기력에 많이 근접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여러 번 치러본 경험과 '엄마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2차 선발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자부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과 이진용이 각각 9위와 20위에 자리하며 대회를 마쳤다.

오는 13일부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이승윤은 "아쉬운 성적이지만 2, 3차 선발전이 남은 만큼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일 인천선수촌에 입촌하는 이승윤은 "대표선발전은 뒤로 하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대비해 다관왕



2022년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선전한 광주·전남 선수들. 이현창(왼쪽부터) 남구청 감독, 이진용, 이승윤, 안산, 김민서, 기보배.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겠다. 태극마크의 무게를 항상 잊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양궁을 빛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 아시안컵 양궁 2차 대회, 2019 유스세계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준비된 스타'로 자리매김한 이진용도 '광주 남자양궁

중흥'이라는 각오로 2차 선발전을 준비한다.

올해 광주여대 입학을 앞둔 '여고생 태극마크' 오예진(울산스포츠과학고)은 5위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여자양궁 명문' 광주여대는 안산과 김민서에 이어 오예진의 합류로 내년 대학·실업 무대 돌풍의 주



2022년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로 통과한 순천시청 이은경.

역으로 부상했다.

한편, 리커브 1차 선발전에는 남자부 100명, 여자부 96명이 참가했다. 이번 선발전도 기존 대표팀에 대한 별도의 혜택 없이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스쿼시 김가혜 올 시즌 첫 전국대회 제패

영산컵 코리아오픈서 라이벌 양연수에 3-2 승

김가혜(광주시체육회·40)가 숙적 양연수(전남도청)를 꺾고 올 시즌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에 섰다.

김가혜는 지난 27일부터 김천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영산컵 코리아오픈 스쿼시 챔피언십' 개인전 1위에 올랐다. 영산컵은 대한스쿼시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공인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김가혜는 이 대회에서 결승 진출까지 상대를 모두 3-0으로 제압하는 등 절정 기량을 선보였다.

그는 '10년 라이벌' 양연수(전남도청)를 3-2로 따돌렸다. 강점인 날카로운 드라이브샷과 체력을 앞세워 양연수를 제압, 올 시즌 첫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가혜는 32강에서 만난 박은옥(전남도청)을 3-0으로 꺾고 삼관하게 출발했다. 이어 16강전에서 송지유(인천시체육회)를 3-0으로 완파한 뒤 8강에서 송동주(한국체대), 4강 문혜원(전북체육회)을 각각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가혜의 우승에는 광주스포츠과학센터의 현장 지원도 한몫했다.

그는 이번 대회 참가전까지 스포츠과학센터의 현장 지원을 바탕으로 최고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제14회 영산컵 코리아오픈 스쿼시 챔피언십 여자부 개인전에서 우승한 김가혜(오른쪽)와 박한솔(왼쪽) 광주시 스쿼시연맹 전무이사. <광주시스쿼시연맹 제공>

한다. 수년 전부터 광주스포츠과학센터의 밀착 지원 선수로 부상회복과 컨디션닝 전담 관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이기도 하다.

박세준 광주스쿼시회장은 "코로나19에서도 힘든 훈련을 소화해내고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너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19일 광주시체육회관 스쿼시장에서 '제21회 회장배 국 스쿼시 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대학·일반부 선수 70여 명이 참가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해남서 열린다

전남도체육회 이사회서 확정

해남군에서 내년엔 전남생활체육대축전·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

3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8일 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7차 이사회에서 2022년도 제34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제17회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해남군을 확정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10월 25일부터 3일 동

안 22개 종목은,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5~6월에 9개 종목을 각각 치른다.

해남군은 개최지원금으로 7억원의 준비를 계상,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번 대회 개최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도체육회는 밝혔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해남군이 대회 개최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비록 짧은 대회 준비기간이지만 성공 개최를 이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효주, KLPGA 시즌 두번째 우승

여자골프 세계랭킹 11위 김효주(2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31일 제주도 서귀포의 핑크스 골프클럽(파72·6707야드)에서 열린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8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써낸 김효주는 2위 이소영(24·13언더파 275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은 1억4400만원이다.

김효주는 미국 대회가 없는 이번 주 국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 우승했다.

지난달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올해 KLPGA 투어에서만 2승을 거뒀다.

LPGA 투어에선 5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까지 통산 4승을 보유했던 김효주는 이번 시즌 아마추어 시절인 2012년 4월 롯데마트 여자 오픈까지 포함해 통산 승수를 14승으로 늘렸다.

한 타 차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효주가 전반 3타를 줄이며 2위와 4타 차로 반환점을 돌아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듯했으나 5타 차 공동 9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이소영의 맹추격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김효주. /연합뉴스

이소영이 9번(파5), 11번, 13번, 15번 홀(이상 파4) 징검다리 버디로 두 타 차로 좁힌 가운데 후반 들어 샷이 조금씩 흔들리던 김효주는 12번 홀(파4)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뒤 결국 보기를 써내 한 타 차로 쫓겼다.

이소영은 16번 홀(파5) 버디로 공동 선두까지 만들었다.

김효주는 13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 30cm 정도에 붙인 뒤 가볍게 버디를 낚아 다시 한발 앞섰으나 이소영은 18번 홀(파4)에서 7m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공동 선두를 탈환하며 먼저 경기를 마쳐 압박했다.

김효주는 17번 홀(파3) 7번 아이언 티샷이 그린을 지나가 프린지에 멈춰 서며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기회로 바꾸며 우승에 가까워졌다.

홀을 9m 가까이 남기고 어려운 경사에서 퍼터

로 보낸 공이 빨라 들어가 버디가 된 것이다.

단독 선두를 되찾은 김효주는 18번 홀에서 침착하게 파를 지켜내며 우승을 결정지었다.

이소영은 이날만 8타를 줄이는 맹타로 지난해 5월 E1 챔피언 오픈 이후 1년 5개월 만의 우승을 노렸으나 시즌 최고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임희정(21)이 4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3위(10언더파 278타)에 올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승연(23), 유혜란(20), 이소미(22)는 공동 4위(9언더파 279타)에 자리했다.

최혜진(22)은 공동 14위(5언더파 283타), 박민지(23)는 공동 32위(이븐파 288타)로 대회를 마쳤다. 장하나(29)는 공동 65위(8오버파 296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3관	아네트, 애프터: 관계의 합정, 극강의 장구는 뭇말과, 격돌! 낙서왕국과 열두네 명의 용사들
4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5관	툰
6관	툰, 보이스
9관	바다 탐험대 육토티: 육자수호 대작전, 고장난 룬
7관	씨네카를 톰, 그림자꽃,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8관	씨네카를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스, 용과 주근깨 공주, 극강의 장구는 뭇말과, 격돌! 낙서왕국과 열두네 명의 용사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간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
일시 : 2021. 11. 20.(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